



Title	다자이 오사무 “황금풍경”
Author(s)	강, 성국; 김, 윤희
Citation	多言語翻訳 : 太宰治『黃金風景』. 2012, p. 22-25
Version Type	VoR
URL	<a href="https://hdl.handle.net/11094/32748">https://hdl.handle.net/11094/32748</a>
rights	
Note	

*The University of Osaka Institutional Knowledge Archive : OUKA*

<https://ir.library.osaka-u.ac.jp/>

The University of Osaka

## 다자이 오사무 “황금풍경”

강성국 김윤희

외딴 바닷가에 푸르른 떡갈나무 한 그루, 그 나무에 황금 사슬이 둘러진  
채 -푸쉬킨-<sup>①</sup>

어렸을 때 나는 인간성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식모를 괴롭혔다. 나는 느려터지는 건 질색인지라, 느려터진 식모를 특히나 괴롭혔다. 오케이(お慶)는 느려터진 식모다. 사과를 깎게 해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세 번은 손을 멈추고 있는지라 그 때마다 “야!”하고 따끔하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한 손에 사과, 또 한 손에 칼을쥔 채 언제까지나 멍하니 있는 것이다. 어딘가 모자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꼴사납고 이상하게 비위에 거슬려서 “야, 오케이! 하루는 짧다구.”라고 어른같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방진 말을 던졌다. 그것도 모자라 한번은 오케이를 시켜서 그림책에 실린 몇 백명이나 되는 우글거리는 군인들— 말을 탄 사람도 있고 깃발을 든 사람도 있고 총을 맨 사람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가위로 오려내게 했다. 손재주가 없는 오케이가 아침부터 해가 저울 때까지 점심도 짖어가며 한 게 겨우 30 명 정도로, 그것도 대장의 수염 한 쪽은 잘라내 버리고 총 든 군인의 손은 곰의 앞발처럼 크게 잘라 내거나 해서 그 때마다 일일이 내게 흔이 났다. 여름 무렵이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오케이가 잘라낸 군인들은 모두 오케이의 손에서 나온 땀 때문에 놋눅해져서 나는 결국 짜증을 내며 오케이를 발로 걷어 차고 말았다. 분명히 어깨를 찼을 텐데 오케이는 오른쪽 볼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리며 푹 엎드리더니 흐느끼면서 말했다.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차인 적은 없었는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신음하는 듯 겨우 말을 이어가는 투가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 외에도 나는, 마치 그것이 내게 주어진 숙명이라도 되는 양, 오케이를 못살게 굴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성향이 어느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의 난 무식하고 우둔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재작년 집에서 쫓겨난 나는, 하루 아침에 궁핍해져서 거리를 떠돌며 여기저기 빌붙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고, 이제야 어느 정도 글재주로 자립할 수 있을까 생각될 무렵, 병이 들고 말았다. 그 해 여름, 지인들의 도움으로 치바현 후나바시쵸(千葉県船橋町)에 있는 진흙빛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려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밤마다 잠옷을 짜낼 정도의

식은땀에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고, 매일 아침 차가운 우유 한 병<sup>②</sup> 만이—기묘하게도 단지 그것만이—살아있다는 기쁨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핀 협죽도(夾竹桃) 꽃<sup>③</sup>이 활활 타오르는 불로 보일 정도로 병에 지쳐 있었다.

그 무렵 호구 조사 차 방문한, 마흔살 정도에 마르고 작은 몸집을 한 순경이 현관에서 장부에 적힌 내 이름과 면도도 못한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아니, ~ 도련님 아니십니까?”, 순경의 그 말에는 억센 고향 사투리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라고 나는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순경은 그 마른 얼굴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얼굴 가득 함박 웃음을 띄우고서는,

“아이구, 역시 그랬군요. 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20년쯤 전에 K에서 마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K란 내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다.

“보시다시피...” 난 미소를 띄울 기력도 없이 대답했다. “저도 지금은 밀바닥 신세입니다.”

“당치도 않아요.” 순경은 여전히 즐겁다는 듯이 웃으며, “소설을 쓰신다니 그건 굉장히 출세지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라고 순경은 소리를 낮추고는 “오케이가 항상 도련님 얘길 한답니다.”

“오케이?” 곧바로는 떠오르지 않았다.

“오케이요. 잊어버리셨나보네. 도련님 댁에서 식모살이 하고 있었던.....”

생각이 났다. “아아.....”하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고는 현관 앞 낮은 마루<sup>④</sup>에 쭈그려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자니, 20년 전 느려터졌던 한 식모에게 했던 자신의 악행이 하나 둘 떠올라 더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행복한가요?”<sup>⑤</sup> 문득 얼굴을 들어 그런 돌발적인 질문을 하는 내 얼굴은, 분명히 죄인... 피고... 비굴한 웃음마저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네. 뭐 그럭저럭요.” 거리낌없이 그렇게 명랑하게 대답하고서 순경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는,

“괜찮으시다면요, 다음에 집사람 데리고 한번 천천히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나는 순간 자리에서 뛰어오를 정도로 놀랐다. “아니, 그럴 것까지야.....”라고 강하게 거절하고서는, 형용할 수 없는 굴욕감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순경은 명랑했다.

“우리 애가 말이죠, 이 근처 역에서 일하게 되어서요. 그 녀석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 딸...막내딸이 올해 여덟 살로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한시를 놀았지요. 집사람도 고생했습니다. 뭐랄까요, 도련님 댁같은 큰 집에서 예의법도를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역시 어딘가 달라요.” 조금 얼굴을 붉히며 웃고는 “도련님 댁 덕,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도 항상 도련님 이야기를 해요. 이번 휴일에는 꼭 같이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하더니 “그럼 오늘은 실례하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일보다도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나는, 바다에라도 나가 보려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선 현관문을 드르륵 열었다. 그러자 밖에는 유카타 차림의 부부와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나란히 서 있었다. 오케이의 가족이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다.

“왔습니까? 오늘 전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날에 와 주세요.”

오케이는 고상한 중년 부인이 되어 있었다. 여덟살 짜리 아이는 식모 시절의 오케이를 쑥 빼닮아서 아둔하고 탁한 눈빛으로 명하니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딱하게도 나는, 오케이가 아직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도망치듯 해변으로 뛰쳐 나갔다. 대나무 지팡이로 해변의 잡초를 이리저리 훑으며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발을 동동 구르듯 거친 걸음으로 무턱대고 해변가를 따라 마을 쪽으로 똑바로 걸었다.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 의미도 없이 활동사진관의 간판을 올려다보고... 포목상 창문을 쳐다보고... 쫓듯 혀를 차고서는, 마음 한 구석에서 ‘졌다, 졌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와서 아래선 안된다고 몸을 세차게 흔들고는 다시 걷고… 3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나는 다시 우리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닷가로 나온 나는 멈춰섰다. 보라, 전방에 평화로운 그림이 펼쳐져 있다. 오케이의 가족 세 명이, 한가롭게 바다에 돌 던지기를 하며 웃고 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꺄….” 순경은 힘껏 돌을 던지고는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 분은 금방 출세할거야.”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오케이는 자랑스러운 듯한 상기된 목소리다. “그 분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아랫 사람들도 친절하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나는 선 채로 울고 있었다. 거친 흥분이 눈물로, 말끔히 녹아버리는 듯하다.

졌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그들의 승리는

또한, 내일부터의 나의 출발에도 빛을 비춰 주리라.

---

①원문: 「海の岸辺に緑なす櫻の木、その櫻の木に黄金の細き鎖のむすばれて」  
알렉산드로 푸쉬킨 (1799-1837; 러시아 시인, 작가)의 서사시 『루슬란과 루드밀라』 프롤로그 도입부의 한 구절이다. 푸쉬킨의 시에는 「細き」에 해당하는 어구가 없다.

②원문: 「一合」

明治이후를 기준으로, 180ml 이다.(중국의 1 푹과는 양이 다름)  
昭和初期부터 昭和 45 年경까지는 180ml 들이 병으로 배달되는 것이, 우유판매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③협죽도(夾竹桃): 상록수로서 여름에 筒状鐘의 붉은 빛 꽃을 피운다. 높이 2~4 미터. →42 페이지의 사진 참조

④원문: 「式台」

일본식 주택 현관의, 복도마루보다 한단 낮은 마루이다. 복도의 본 마루에 올라서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며, 주인이 손님을 배웅하거나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41 페이지의 그림 참조

⑤원문: 「幸福ですか？」

원문을 그대로 살려 "행복한가요?"로 번역했다. 문맥상 "오케이는 건강한가요?" 혹은 "지금은 월하고 계세요?" 등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내용상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자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직역했다.